

시선

사설

유례없는 사건,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길

국제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학칙 상 위법 사항은 아니라지만 애초에 그 학칙이 회장직 연임과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느슨한 규정임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위법성 여부보다는 개인적 진정성과 제도보완의 필요성 차원으로 논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총학생회장직과 그 임기에 대한 김병경 전 회장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제48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당초 내걸었던 공약 중 많은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뽑아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양해의 과정도 없이 재선을 위해 현 회장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신뢰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차기 총학 선거를 주관하게 될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권력이 차기 권력을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이 구조가, 올해에 중선관위 위원장과 특정 후보가 개인적·정치적 사적 관계로 엮이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성 논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올바르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헌회의 의의 사례를 경유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현대 대통령체를 탄생시킨 178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대통령의 독립성과 책임정치의 실현여부와 맞물린 사안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만일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불허된다면 유능한 인물이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덜 유능한 인물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될 것을 우려했다. 또 만일 대통령을 입법부가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허용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는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공모할 수 있으리라 우려했다. 55인의 제헌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고민 끝에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기를 짧게 하는 한편 유능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임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체의 기틀을 완성했다.

이를 현재 국제캠퍼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결국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임이 드러난다. 먼저, 별도의 연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재의 학칙으로는 현 총학 회장의 연임 시도 시 필연적인 업무공백을 수반하게 만든다. 때문에 현행 학칙에 대한 세밀하고 정지(精緻)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재 권력이 차기 권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행 중선관위 시스템은 유권자에게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중선관위와 특정 후보가 공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중선관위를 일반학생 등 총학 집행부 외부에서 조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모 학과 교수 성폭력 의혹 수업은 그만둔 상태

미디어 여론동향 2016.10.17 ~ 11.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우리대학 모 교수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아왔다는 피해자의 글이 SNS에 게재됐다. ((1보) 교내 교수 성추문 논란/대학주보 온라인, 2016.10.26)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의 처제로, “28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고, B교수의 학위논문을 대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교수는 SNS를 통해 설명으로 반박 글을 올린 상황이다. A씨는 B교수를 유사강간 및 폭행, 학대, 강도 등에 의한 현금 갈취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 B교수는 해당 사건 언론유보에 대해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우리학교 감사행정원은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B



이 주의 주제 - 총학생회장 사퇴

어제의 회장이 오늘의 후보자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정치권에서 재선을 위해 임기 중에 직위를 버리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작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 항간에선 김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輿論이 나온 바도 있다. 대표가 물러난 집단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김병경 회장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퇴서를 올리고 돌연 사퇴했다.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김 회장이 차후 선거본부에 참여하는 것인지, 직접 재출마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의문은 바로 다음 날 풀렸다. 김 전 회장은 Re:action 선거본부의 총학 회장 후보자로 등록했고, 학생 사이에선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임기와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겹쳐 김 전 회장은 임기의 약 6분의 1 가량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총학생회장이 연임을 시도한 경우는 우리학교 예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지위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연임 또는 사퇴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후 선거과정에 대해 일각에선 의심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하루 만에 총학생회장에서 후보자 신분이 된 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선거에서 중선관위장을 맡는 이는 48대 총학에서 김 전 회장과 일했던 박수지 부회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사퇴 이후 회장 업무를 박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선관위장을 맡는 것도 학칙에 부합한다. 역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처음으로 총학회장에 도전했던 지난해 선거 당시, 모호한 선거세칙으로 인해 공과대학 제1투표소, 국제경영대학 투표소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선관위의 장을 맡은 47대 총학 김용석 전 회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병경 전 회장은 사퇴 전까지 선거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불거졌던 선거시행세칙 문제와 협 김 후보자가 일으킨 파문은 학칙의 혼란이다. 학칙 상의 개정을 통해 중임·단임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 연임 시 후보자와 중선관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시스템의 보완 없이는 중선관위와 김 후보자 간의 의혹은 계속될 수 있다.

교수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는 입장을 내놨다. B교수는 지난 10월 10일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진행하던 수업을 그만둔 상태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5일, 경찰병력 1천여 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고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집행 마감일, 경찰과 시민과의 대치상황 벌어져/대학주보 온라인, 262016.10.27) 우리학교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과 시민 천여 명은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부검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이에 반대하는 유족, 시민들의 대치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시민들은 ‘부검말고 특검하라’, ‘살인경찰 물려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행 시도 3시간 만에 장례식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철수 후 고 백남기 씨의 유족인 백도라지 씨는 “여러분의 힘으로 경찰의 손에서 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자리를 지켰던 우리학교 한 학생은 “영장집행을 강행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유족들이 오롯이 추모의 시간을 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서울캠 크라운관에서 뚜웨이밍 베이징 대 고등인문연구원 원장이 ‘영성적 휴머니즘: 유교, 새로운 인간학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대학·화(和) 강조하는 유교 정신 필요”/대학 흙에 이지 Focus, 2016.10.24) ‘세계 지성에게 묻는다: 문명 전환과 아시아의 미래’ 강좌시리즈의 다섯 번째 프로그램인 이번 강좌에서 뚜웨이밍 교수는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신적 인문주의’를 제안하며 ‘유교적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이는 생태학적·다원론적 인식 등에 대한 창조적인 반응으로서 문화적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타성’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휴머니즘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명 간 대화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뚜웨이밍 교수는 오늘날 지구촌 문제의 원인으로 ‘이타성 부재’를 꼽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자 세계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에는 쏟 거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 연구소 교수, 12월 12일에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특강이 예정돼 있다.

‘진정성’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지 2주가 지나간다. 무수히 많은 대학과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수많은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더 큰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박 대통령의 녹화사과 영상과 국민대답화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동정과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수많은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과 영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이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 ‘일부 언론’이라고 한정시켜 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논란을 뒤를만한 큰 이슈를 또 다시 들고 올 것이라면 것을. 박 대통령은 JTBC의 의혹 제기 후 곧 바로 개헌이라는 논의를 들고 온 것과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돌리지 않자 강제집행은 유족과 합의로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졌고, 개헌이라는 논의는 곧 바로 사그라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굿 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대역을 썼다’, ‘곰탕을 먹은 적이 없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의혹과 농담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지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감사할 정도이다. 이번의 사태는 박 대통령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지금,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모든 부조리를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 또 다시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다. 이번에도 비선실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국민들은 개, 돼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드디어 국민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또 다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